

성령과 성령님의 식별

서론,

번역 및 글쓴이 이 대선 목사

1. 성령과 성령님의 유래는 구약으로부터
2. 성령과 성령님을 식별하는데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
3. 그리스어 24가지 정관사를 478장으로 부르기
4. 고유명사로 사용된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 성령님

1장 성령의 발자취를 찾아서

1. 구세주의 출생과 성령의 발자취
2. 담금질의 개혁, 성령과 불 속이다
3. 구세주와 제자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발자취
 - 1) 예수에게 충만한 성령
 - 2) 스테파노쓰에게 충만한 성령
 - 3) 바르나바쓰에게 충만한 성령
 - 4) 싸울로쓰를 채운 성령
 - 5) 페트로쓰를 채운 성령
 - 6) 성령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들의 의미 정리
4. 예언을 주시는 성령의 발자취
5. 성도들에게 입한 성령의 발자취
6. '채웠다'는 의미
7. 대용어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수 없는 구절들

2장 성령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1. 오순절 다락방 행전2:1-4, 성령님의 발자취
2. 코넬리오쓰 집,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발자취
3.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님
4. 예언을 주시는 성령님
5.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성령님에 대항해서 항거하는 죄

3장 결론

1. 성령이 입한 예문들 정리
2. 성령님이 임하는 예문들 정리
3. 예문들에 나타난 성령과 성령님 역할 대비
4. 예루살렘 총회(행전15:14-30)에 영향을 미친 베드로의 발언

서론,

7000여 년 전에 살았던 쑤메리안 사람들의 그림 중에서 ‘영혼을 저울에 다는 그림’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오는 영혼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묻고는, ‘이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자’ 그리고 황소 한 마리를 또 저울에 올려라. 저울에 올리자마자 황소는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아 이 놈 좋은 놈이다, 좋은 일 많이 시켜라, 대목이 왔구나, 잘 관리해라.

자!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오는 저 혼을 여기 저울에 올려라. 토끼 한 마리를 저울에 올려라. 올리자마자, 이 번에는 영혼이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아! 이 혼이 왜 이렇게 가벼워. 깃털보다도 가볍네. 이 놈을 대려다가 내려쳐라. 통통 붙도록 쳐라, 쓸모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을 오래 전에 유심히 쳐다보면서, 참 깃털 보다 더 가벼운 내 영혼, 무게가 없는 인간, 하느님 앞에 쓸모없는 영혼! 아직도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 밖에 없는 내 영혼이 ‘성령’과 ‘성령님’을 식별하는 강의를 할 자격은 페니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에 적힌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듬어서라도 찾아본다면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구절들을 사용하면서 ‘성령님’과 ‘성령’을 식별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단어 뜻 정의

성령님, 그분의 거룩한 영 **רוּחַ קְדוֹשׁ** =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αὐτοῦ 그분의 성령님,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성령, 성령님보다 약한 영으로 사람의 본디 영과 상호간에 접촉하는 영이며, 감화력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영으로 악영과 대칭관계에 있다. 성령의 발음은 ‘성형’처럼 ‘영’을 약하게 발음한다.

악영, ‘악령’ 대신에 ‘악영’을 사용한다. 악영은 성령과 대칭관계에 있다. ‘악령’이라는 단어는 ‘성령님’과 대칭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악령’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악영의 발음은 ‘성형’처럼 ‘영’을 약하게 발음한다.

1. 성령과 성령님의 유래는 구약으로부터

당신의 면전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나로부터 가져가지 마십시오(시편50:13).

① אֱלֹהֵי יִשְׂרָאֵל מִלִּפְנֵיךָ וְרוּחַ קְדוֹשְׁךָ אֵל־תִּקַּח מִמֶּנִּי

① μὴ ἀπορρίψῃς με ἀπὸ τοῦ προσώπου σου καὶ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όν σου μὴ ἀντανέλης ἀπ’ ἐμοῦ(시편50:13)

당신의 면전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령님**을 나로부터 가져가지 마십시오(시편50:13).

그러나 그들은 반동을 일으켰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화를 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분은 그들에게 원수로 돌아섰다. 그 분 스스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다(시편63:10).

② וְהָמָּה מָרוּ וְעִצְבוּ אֶת־רוּחַ קְדָשׁוֹ וַיִּהְיֶה לָּהֶם לְאוֹיֵב הוּא נְלַחֵם־בָּם:

② αὐτοὶ δὲ ἠπειθήσαν καὶ παρώξυνα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αὐτοῦ καὶ ἐστράφη αὐτοῖς εἰς ἔχθραν καὶ αὐτὸς ἐπολέμησεν αὐτούς(시편63:10)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분의 성령님을 화를-내도록-자극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원수로 돌아섰고, 그☞분 스스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다(시편63:10).

그리고 여☞바님의 영이 싸울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여☞바님으로부터 악영이 09/그를 괴롭혔/그에게 떨어졌다(사상16:14).

③ וְרוּחַ יְהוָה סָרָה מֵעַם שָׁאוּל וּבִעַתְתּוּ רוּחַ רָעָה מֵאֵת יְהוָה:

③ καὶ πνεῦμα κυρίου ἀπέστη ἀπὸ Σαουλ καὶ ἔπνιγεν αὐτὸν πνεῦμα ποιηρὸν παρὰ κυρίου

그리고 주님○의 영이 싸울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악영이 그를 질식시키곤 했다(사상16:14). 여☞바님의 영 יְהוָה רוּחַ = πνεῦμα κυρίου 주님○의 영

④ 뛰어난 영 때문에(다니5:12) כָּל־קַבְּלֵי דְיִּי רוּחַ וַיִּתְּרָה

④ καὶ πνεῦμα ἅγιον ἐν αὐτῷ ἐστι

그리고 그(다니엘)안에 뛰어난 영이 있다(다니5:12).

70인(LXX)역에서 그리스어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이 ‘성령’으로 번역된 예문은 찾지 못했다.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은 다니엘 서에서 ‘성령’이 아니고 ‘뛰어난 영’으로 번역했다. 구약 70인역(LXX)에서 외경 쭉싸나까지 포함해서,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은 7회 나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24회 나오며, 이 중에서 17번은 누가가 사용했다. 70인역에서 오직 2번(다니5:12,6:4) 사용된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 ‘성령’이나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은 구약에서 유래는 되었지만,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이며, 특히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이 ‘성령’이란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된 예문은 없는,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 ‘성령’을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으로부터 차별화해서 사용한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당시 의사였으며 그리스어 본토 배기 출신이라고 인정을 받은 누가이다.

2. 성령과 성령님을 식별하는 문제점들

the Holy Spirit 성령;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 Holy Ghost 성혼
신약에서 나타나는 πνεῦμα ‘영’들이 ‘성령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영존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어 정관사 문법으로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주제다. 많은 저자들이 '불결한 영'을 제외하곤 '성령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영'과 '성령님'을 구별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스어에는

- ① 정관사가 24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 ② 정관사가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는지,
- ③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는지,
- ④ 신약의 그리스어가 70인역 구약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변형부정사 구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살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 정관사 풀이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예문들을 수집해서 읽어 나가면서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해 보자.

3. 그리스어 정관사 24가지, 478장으로 부르기

정관사 부르기 찬송가 478장

*기타코드: | C, | G7 C | C | G | C | F C | F C | G7 C ||

후렴 :	주	남	개	뫼	줄	거	워	라
남성형:	ὁ	τοῦ	τῶ	τον	οἱ	τῶν	τοῖς	τούς
	호	투	토	톤	호이	톤	토이쓰	투쓰
여성형:	ἡ	τῆς	τῆ	τήν	αἱ	τῶν	ταῖς	τάς
	헤	테쓰	테	텐	하이	톤	타이쓰	타쓰
중성형:	το	του	τω	τό ~	τά	των	τοῖς	τά
	토	투	토	토 ~	타	톤	토이쓰	타
	영	원	히	거	기	서	살	리:

4. 고유명사로 사용된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 성령님

⑤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ἐ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καθὼς τὸ πνεῦμα ἐδίδου ἀποφθέγγεσθαι αὐτοῖς.

et repleti sunt omnes Spiritu Sancto et coeperunt loqui aliis linguis prout Spiritus Sanctus dabat eloqui illis(VUO)

Und sie wurden alle erfüllt von heiligem Geist und begannen, in fremden Sprachen zu reden, wie der Geist es ihnen eingab. (ZUR)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KJV)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o them to speak forth. (DBY)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령이 그들에게 말로-털어-놓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행전2:4).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에는 정관사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 정관사가 붙었을까?

여기에서 ἁγίου 하기우,는 형용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의 일부분이다. 누가는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를 ‘성령’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① 고유명사가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않고, ② 또한 동격 없이 사용될 때에는, ③ 새로운 단원에서 고유명사가 처음 사용되더라도, ④ 정관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법을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관사가 없는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를 고유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성령님’으로 번역했다. 고유명사로 사용되면 사실상 정관사가 필요 없다. 고유명사 자체로 의미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고유명사가 정관사 없이 처음으로 사용된 후에 다시 사용될 때에는 그 고유명사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정관사의 역할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그 이름을 지적해서 가르키는 지시대명사적인 역할을 한다.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가 고유명사 ‘성령님’으로 사용된 구절들은 행전1:2, 2:4들이다.

⑥ ἄχρι ἧς ἡμέρας ἐντειλάμενος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οὓς ἐξελέξατο ἀνελήμφθη·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선택했던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그는 승천했던 그 날까지(행전1:2). 행전1:2은 새 단원의 시작인데 정관사가 붙지 않은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가 왔다.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는 고유명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정관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에 정관사가 붙으면 삼위일체의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운 저자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다. τὸ πνεῦμα(n1)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나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토 하기온 프뉴마로 ‘성령님’을 표현한다. 그러나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a holy spirit, 성령’,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의 영향력,을 뜻한다. 여기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①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에는 정관사가 없는데도, 처음 언급되는 고유명사로서 ‘성령님’으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② 또 하나는 히브리어 구문론에서는 첫 번째 명사 앞에서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그리스어 번역에서 이러한 히브리어 문법을 받아 들여서 히브리어와 일치감을 갖도록 정관사를 생략한 경우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관사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성령’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이러한 정관사의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믿어왔던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변화를 의미한다. 세례요한이나,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의 영감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뜻이 된다. 또한 매리에게 닦아와서 메씨야를 임신하도록 한 동력은 삼위일체의 ‘성령님’이 아니고, 한정하기 어려운 신의 성스러운 능력이, 성령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마태1:20)이, 구약에서 이쓰라엘의 능력자들을 만들었던 것처럼(마태1:20, 누가1:35), 매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장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성령의 발자취를 찾아서

1. 구세주의 출생과 성령의 발자취

⑦ ταῦτα δὲ αὐτοῦ ἐνθυμηθέντος ἰδοὺ ἄγγελος κυρίου κατ' ὄναρ ἐφάνη αὐτῷ λέγων, Ἰωσήφ υἱὸς Δαυὶδ, μὴ φοβηθῆς παραλαβεῖν Μαρίαν τὴν γυναῖκά σου· τὸ γὰρ ἐν αὐτῇ γεννηθὲν ἐκ πνεύματος ἔστιν ἁγίου.

그러나 그가 이들에 대해서 깊이-생각하는-동안에(ἐ),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ἐ) 말했습니다: 다비드의 아들 이오셉야! 그녀 안에 임신이 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너의 부인으로 취하는-것을 두려워하지(φ) 말라 (마태1:20).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우에는 정관사가 없다.

⑧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ἄγγελος εἶπεν αὐτῇ, Πνεῦμα ἅγιον ἐπελεύσεται ἐπὶ σὲ καὶ δύναμις ὑψίστου ἐπισκιάσει σοι· διὸ καὶ τὸ γεννώμενον^(nns) ἅγιον^(nns) κληθήσεται υἱὸς θεοῦ.

그리고 그 천사는 응답하면서 그녀에게 말했지요: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높으신-자의(ὕ) 능력이 너를 가리 울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δι) 태어나게 되는 그 거룩한 09/아이는/것은\, 하-님의 아들이라 불러지게-될-것입니다(κ)(누가1:35).

마리아가 임신이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다.

⑨ Καὶ ἰδοὺ ἄνθρωπος ἦν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ᾧ ὄνομα Συμεὼν καὶ ὁ ἄνθρωπος οὗτος δίκαιος καὶ εὐλαβῆς προσδεχόμενος παράκλησιν τοῦ Ἰσραήλ, καὶ πνεῦμα ἦν ἅγιον ἐπ' αὐτόν·

그리고 보세요, 이에루살렘에 이름이 쑤메온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의롭고 독실하고, 이쓰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있었고(πρ)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누가2:25).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에도 정관사가 없어서 '성령'이라 옮겼는데, 노인인 쑤메인에게도 세례요한이나 세례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임했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같은 신의 영감이 임했음을 알 수 있다. 26절, 27절에선 정관사가 붙은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투 프뉴마 투 하기우가 사용되는데, 26,27절에서 정관사는 25절의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온 성령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성령'을 뜻한다.

⑩ καὶ ἦν αὐτῷ κεχρηματισμένον ὑπὸ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μὴ ἰδεῖν θάνατον πρὶν [ἧ] ἂν ἴδῃ τὸν Χριστὸν κυρίου.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그가 언젠가는 주님의 메씨야를 보기 전에는(π), 그가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에게 신적으로-대화가-이루어졌습니다(κε)(누가2:26).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에서 정관사 τοῦ는 25절에서 정관사가 없는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로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투 프뉴마 투 하기로 '그 성령'이라 번역한다.

⑪ καὶ ἦλθεν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εἰς τὸ ἱερόν· καὶ ἐν τῷ εἰσαγαγεῖν τοὺς γονεῖς τὸ παιδίον Ἰησοῦν τοῦ ποιῆσαι αὐτοὺς κατὰ τὸ εἰθισμένον τοῦ νόμου περὶ αὐτοῦ

그리고, 그(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그 법의 관행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 이에쑤쓰를 데리고 들어 올 때에(ἐν), 그(쑤메온)는 그 영^{09/}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안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누가2:27).

τῷ πνεύματι 토 프뉴마티에서 전치사 τῷ 토는 25절에서 이미 정관사 없이 사용된 πνεῦμα ἅγιον 프뉴마 하기로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τῷ πνεύματι 토 프뉴마티는 '그 영'이라 옮긴다.

2. 담금질의 개혁, 성령과 불 속에서

⑫ ἀπεκρίνατο λέγων πᾶσιν ὁ Ἰωάννης, Ἐγὼ μὲν ὕδατι βαπτίζω ὑμᾶς· ἔρχεται δὲ ὁ ἰσχυρότερός μου, οὗ οὐκ εἰμὶ ἱκανὸς λῦσαι τὸν ἱμάντα τῶν ὑποδημάτων αὐτοῦ· αὐτὸς ὑμᾶς βαπτίσει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καὶ πυρί·

[다름-아닌 나는} 당신들을 물에다 담금니다. 그러나 나 보다 더 강하신 자가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쟁들들의 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이에쑤쓰)는 당신들을 성령과 불 속에다 담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완네쓰가 모든 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누가3:16),

세례요한이 곧 대중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할 때에도 정관사가 붙지 않은 πνεύματι ἁγίῳ 프뉴마티 하기로 '성령'을 사용했다. 그러나 비둘기가 내려오는 장면을 읽어 보자.

3. 구세주와 제자들을 채운 성령의 발자취

1) 이에쑤쓰에게 충만한 성령

⑬ Ἰησοῦς δὲ πλήρη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ὑπέστρεψεν ἀπὸ τοῦ Ἰορδάνου καὶ ἦγετο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ἐν τῇ ἐρήμῳ

그러나 이에쑤쓰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오르다네쓰로부터 돌아오셨고, 그 영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어졌다(누가4:1).

본절에서 τῷ πνεύματι 토 프뉴마티의 정관사 τῷ는 상반절에 나온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로 가리키는 대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그 영에 의해서,에서 정관사 τῷ는 상반절에서 이미 언급된 정관사가 없는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쓰 하기로 '성령'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대용어 때문이다. 즉, 이에쑤쓰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같은(충만히 채워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어졌다.

⑭ εἰ οὖν ὑμεῖς ποιηροὶ ὑπάρχοντες οἴδατε δόματα ἀγαθὰ διδόναι τοῖς τέκνοις ὑμῶν, πόσω μᾶλλον ὁ πατὴρ [ὁ] ἐξ οὐρανοῦ δώσει πνεῦμα ἅγιον τοῖς αἰτουσιν αὐτόν.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나쁜 존재이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μ),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성영을 얼마나-더-많이 주시겠는가!(누가11:13)

마태는 ἀγαθὰ 아가따 ‘좋은 선물들을’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말했는데(마태7:11), 누가는 ἀγαθὰ 아가따 ‘좋은 선물들’은 악한 자도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켰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자신 하느님, 삼위일체의 ‘성령님’이 될 수는 없고, 그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정관사가 없는 πνεῦμα ἅγιον ‘성영’을 많이많이 주신다고 가르치는 구절이다.

⑮ Ἰησοῦν τὸν ἀπὸ Ναζαρέθ, ὡς ἔχρισεν αὐτὸν ὁ θεὸς πνεύματι ἁγίῳ καὶ δυνάμει, ὃς διήλθεν εὐεργετῶν καὶ ἰώμενος πάντας τοὺς καταδυναστευομένους ὑπὸ τοῦ διαβόλου, ὅτι ὁ θεὸς ἦν μετ’ αὐτοῦ(행전10:38).

나자레트 출신 예수,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 분을 성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면서 돌아다니셨고, 악영아래서 착취당하는(κ)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자, (말입니다)(행전10:38).

이에쑤쑤께서는 강력한 성영으로 감동함을 받고 능력으로 채워져서 악한 영들과 대항할 수가 있었다. 이에쑤쑤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좋은 선물들’이 아니고 성영을 충만히 받은 후에 이오르다네쓰로부터 돌아오셨고, 하느님께로부터 충만하도록 받은 성영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어졌고, 하느님께서는 πνεύματι ἁγίῳ 프뉴마 하기로 성영으로 이에쑤쑤를 기름부으셨고, 이에쑤쑤께서는 이 성영에 힘입어, 악영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고,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선행들을 행하셨다(행전10:38).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이 기름부음 받을 때 받으셨던 같은 성영속에 그리고 불속에 담그셨다.

(행전10:38)은 긴 명사절로서 세례요한이 설교한(행전10:37) 내용들의 목차다. 목차이기 때문에 본동사가 없는 명사절이다.

제사장 자하리아쓰(엘리자베트의 남편, 세례요한의 아버지)(누가1:67)나, 엘리자베트(세례요한의 어머니)(누가1:41)나, 씨몬도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트쓰 하기로 성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감을 받았지 삼위일체의 한 분인 ὑπὸ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졌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성영이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그리스어로 읽으면서 지금쯤은 성영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내 삶에 미칠 수 있는 성영의 막강한 영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전10:38)에서 병행구를 보는가?

‘하느님께서 함께하심(=하느님의 임재)’과 ‘성영과 능력’이 병행구를 만들고 있다

2) 스테파노스에게 충만한 성영

스테파노스와 바나바스가 받은 영감에 대해서, 행전6:5, 7:55, 11:24을 읽어 보자.

⑯ καὶ ἤρρεσεν ὁ λόγος ἐνώπιον παντὸς τοῦ πλήθους καὶ ἐξελέξαντο Στέφανον, ἄνδρα πλήρης πίστεω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Φίλιππον καὶ Πρόχορον καὶ Νικάνορα καὶ Τίμωνα καὶ Παρμενᾶν καὶ Νικόλαον προσήλυτον Ἀντιοχέα,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은 대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스, 필립포스, 프로호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니콜라우스, 개종자 안티호휴스를 선택했습니다(행전6:5). 스테파노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문장입니다.

⑰ ὑπάρχων δὲ πλήρη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ἀτενίσας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ἶδεν δόξαν θεοῦ καὶ Ἰησοῦν ἐστῶτα ἐκ δεξιῶν τοῦ θεοῦ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ὁ) 그(스테파노스)는 그의-눈으로- 하늘을 -쏘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에쭈스를 보았습니다(행전7:55).

똑같은 단어 πλήρη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가 예수님(누가4:1), 스테파노스, 바르나바스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스테파노스 바르나바스(행전11:24)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

3) 바르나바스에게 충만한 성령

⑱ ὅτι ἦν ἀνὴρ ἀγαθὸς καὶ πλήρη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πίστεως. καὶ προσετέθη ὄχλος ἰκανὸς τῷ κυρίῳ.

그(바르나바스)는 좋은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으며, 큰 군중이 주님에게 더해졌기 때문에(행전11:24)

for he was a good man an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a large crowd of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Act 11:24 DBY)

바르나바스 역시 성령님이 아닌 성령으로 감동 받았음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순교자 스테파노스나 바르나바스나 모두 성령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4) 싸울로스를 채운 성령

⑲ Σαῦλος δέ, ὁ καὶ Παῦλος, πληθεὶ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ἀτενίσας εἰς αὐτὸν

그러나 또한 파울로스인 싸울로스는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엘리무스)를 응시하면서(행전13:9),

싸울로스가 씨프루스에서 마술가인 엘리무스를 비난할 때인데, 싸울로스는 스테파노스처럼 성령님이 아닌 성령에 충만해 있었다는 구절이다.

5) 페트로스를 채운 성령

⑳ Τότε Πέτρος πληθεὶ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ῦς

그후 페트로스는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행전4:8).

6) 성령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들의 의미 정리

① πλήρης 플레레쓰, 항상 '충만한'을 뜻한다.

이에쑤쑤, 스테파노쑤, 바르나바쑤에게 ‘충만했던 성령’을 표현한 단어 πλήρης 플레레쑤는 격변화를 하지 않는 형용사다. ‘충만’이라는 뜻에는 충만한 상태가 ‘언제나’ 계속되는 ‘진행성, 반복성’이 그 의미에 내포되 있다. 한 순간에만 충만하고 다음 순간에는 부족하다면 ‘충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πλησθεῖς 플레쑤쑤쑤쑤 반복적으로 ‘채워졌다’는 뜻이다.

πλησθεῖ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플레쑤쑤쑤쑤 프뉴마토쑤 하기우에서 πλησθεῖς 플레쑤쑤쑤쑤는 분사 부정과거 수동태 형으로 본동사와 거의 동시동작을 표현한다. 분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채워져서’라는 동작에는 ‘진행성, 반복성’이 그 의미에 내포되 있다.

③ ἐπλήσθησαν 에플레쑤쑤쑤쑤 ‘그들은 채워졌다’는 돌발적 동작이다.

ἐπλήσθησαν 에플레쑤쑤쑤쑤,은 능동태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형으로 발생한 동작을 표현한다. 그리고 나서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ἑτέροις γλώσσαις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다른 동작이 따라온다. 행전2:4의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그들은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에서 능동태 부정과거인 동사 ἐπλήσθησαν 에플레쑤쑤쑤쑤 ‘그들은 채워졌다’에는 진행성은 없고 **돌발적이고 순간에 발생한 일회적인 동작**으로 앞에서 언급한 πλήρης 플레레쑤와 πλησθεῖς 플레쑤쑤쑤쑤와는 대조적이다.

일괄적으로 살아 가셨던 이에쑤쑤, 스테파노쑤, 바르나바쑤와 관련해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항상 ‘충만한 성령’ πλήρης 플레레쑤를 사용했고; **부인했다**가 다시 돌인킨 페트로쑤나, 믿는 자들을 죽이다가 **늦게야** 이에쑤쑤를 전파하기 시작한 싸울로쑤와 관련해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반복적으로 ‘채워졌다’는 πλησθεῖς 플레쑤쑤쑤쑤를 사용했고; 오순절 후에 **영문도 모른 채** ‘성령님’의 역사를 갑자기 체험하게 된 오순절 성도들에게는 돌발적으로 ‘채워졌다’는 ἐπλήσθησαν 에플레쑤쑤쑤쑤 동사를 저자 누가가 골라서 사용한 것들을 보면, 그들의 삶과 일치하는 단어들을 잘 골라서 표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4. 예언을 주시는 성령의 발자취

㉑ ὁ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στόματος Δαυὶδ παιδός σου εἰπών,
‘Ἰνατί ἐφρύαξαν ἔθνη καὶ λαοὶ ἐμελέτησαν κενά;

누구가, 당신의 종이며 우리의 아버지인 다비드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이방인들은 사납게-날뛰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피하는가?' 라고 말했는가?(행전4:25)

본절은, 하느님께서,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토쑤 하기우 성령을 사용하시지만, 다윗의 입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의 감화력을, 표현하셨다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점은 ‘הַיְהוָה אֱלֹהֵינוּ 여호와(성) 영’은 구약시절부터 유대교에서 사용해 와서, ‘성령’이라는 단어의 역사가 아주 깊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신의 뜻과 맞물려 살아갈 때 접촉하는 단어가 ‘성령’이며, 또한 인간의 심리psychology, 영혼soul, 활동activity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은 틀림없다.

는 정관사가 온 τὸ πνεῦμα, '그 영'이 왔다. 여기에서 정관사 τὸ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된 것이다. 누가는 같은 영을 받는 역사를 강조하기를 원했던 같다.

㉘ εἶπέν τε πρὸς αὐτούς, Εἰ πνεῦμα ἅγιον ἐλάβετε πιστεύσαντες; οἱ δὲ πρὸς αὐτόν, 'Ἄλλ' οὐδ' εἰ πνεῦμα ἅγιον ἔστιν ἠκούσαμεν.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었을 때에 만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했습니다(행전19:2).

에페소스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인데도,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며, 아마도 악영에 대해서는 알았겠지만,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난 후에야 성령을 받게 된다. 19:6절에 나타난 정관사 τὸ는 대용어anaphora로 2절에서 이미 언급된 성령을 가리킨다.

㉙ καὶ ἐπιθέντος αὐτοῖς τοῦ Παύλου [τὰς] χεῖρας ἦλθε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π' αὐτούς, ἐλάλουν τε γλώσσαις καὶ ἐπροφήτευον.

그리고 파울로쓰가 그의 손들을 그들 위에 얹었을 때에, 그 09/성령/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혀소리로 말했으며 앞으로-있을-일들을-말했습니다(행전19:6).

And when Paul lai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Act 19:6 NAB 캐톨릭역 2010년)

And when Paul had laid his hands upon them, the Holy Ghost came on them; and they spake with tongues, and prophesied.(Act 19:6 KJV)

And when Paul had alaid his hands up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began speaking with tongues and cprophesying. (Act 19:6 NAU)

이러한 정관사 유무로 성령과 성령을 구분하는 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정관사를 교회나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삽입한 것인지, 참으로 정관사가 문법적인 측면에서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된 것인지를 일반인으로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행전5:3을 읽어 보자.

6. '채웠다'는 의미

㉚ εἶπεν δὲ ὁ Πέτρος, Ἀνανία, διὰ τί ἐπλήρωσεν ὁ Σατανᾶς τὴν καρδίαν σου, ψεύσασθαί σε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καὶ νοσφίσασθαι ἀπὸ τῆς τιμῆς τοῦ χωρίου;

그러나 페트로쓰가 말했다, 아나니아쓰야! 무슨 이유로, 사타나쓰가 너의 마음을 09/다스리도록 했/채웠\느냐?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또 09/들판/땅\ 값으로부터 너를-위해서-일부를 숨겼느냐?(행전5:3)

διὰ τί 왜, 무엇 때문에? 페트로쓰가 아나니아쓰 보고,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 했다. 곧 하느님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이 때에 페트로쓰는 분명하게 정관사를 사용했다.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은 5장 첫 머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앞 절에서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사 τὸ는 분명히 대용어anaphora가 아니다.

㉛ οὐκ ἐψεύσω ἀνθρώποις ἀλλὰ τῷ θεῷ.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에게!(행전5:4). 4절이 중요한 것은 페트로쓰가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과 τῷ θεῷ. '하느님'을 같은 인격자로 사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내가 왜 존칭어 '님'을 '성영'에는 붙이지 않고 '성령'에는 붙이는지 이 구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ἐπλήρωσεν 에플레로센은 예배5:18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③ καὶ μὴ μεθύσκεσθε οἴνω, ἐν ᾧ ἐστὶν ἀσωτία, ἀλλὰ πληροῦσθε ἐν πνεύματι, 너희들은 술로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방탕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으로 채워져라.

그리스어 동사 πληρόω 플레로오는 ① 명령들, 의무들, 요구들을 성취한다, 특히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고 완성시킨다(골로4:17)는 뜻을 표현할 때도 동사 πληρόω 플레로오가 사용되었다. ②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해서 끝내 준다, 끝까지 도달한다, 완성시킨다(행전12:25)는 뜻을 표현할 때에도 동사 πληρόω 플레로오가 사용되었다. 동사 πληρόω 플레로오 '채운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조정하고 다스린다'는 뜻이다(NET). 그러면, 예배5:18절에서 '영으로 채워져라'는 뜻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술이 아닌, 성영이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이 나온다.

7. 대용어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수 없는 구절들

③④ ἡμεῖς ἐσμεν μάρτυρες τῶν ῥημάτων τούτων καὶ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ἔδωκεν ὁ θεὸς τοῖς πειθαρχοῦσιν αὐτῷ.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증인들이십니다)(행전5:32).

③⑤ τοῦ δὲ Πέτρου διενθυμουμένου περὶ τοῦ δράματος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πνεῦμα, Ἴδου ἄνδρες τρεῖς ζητοῦντές σε, 그리고 페트로쓰는 그 환상에 대해서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령**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 남자들이 너를 찾고 있다.”(행전10:19)

③⑥ εἶπεν δὲ τὸ πνεῦμά μοι συνελθεῖν αὐτοῖς μηδὲν διακρίναντα. ἦλθον δὲ σὺν ἐμοὶ καὶ οἱ ἕξ ἀδελφοὶ οὗτοι καὶ εἰσήλθομεν εἰς τὸν οἶκον τοῦ ἀνδρός. 그리고 **령**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 여섯 형제들이 나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행전11:12).

군병들이 페트로쓰와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가 염려해서(5:26), 그들을 예루살렘의 최고 재판소인 sanhedrin으로 데리고 간다.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자신들은 이 일들만 아니고 **성령님**도 또한 증인이시라고 까지 말할 때에 정관사를 사용해서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라 발언한 구절이다.

1장에서 중요한 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같은 질의 '성영'으로 감화를 받았으며, 각각 담당했던 구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점이다.

2장 성령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거룩하게 섬기자!

지금부터는 정관사가 붙은 τὸ πνεῦμα 토 프뉴마,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로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자!

37 καὶ καταβῆναι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σωματικῶ εἶδει ὡς περιστερὰν ἐπ' αὐτόν, καὶ φωνὴν ἐξ οὐρανοῦ γενέσθαι, Σὺ εἶ ὁ υἱὸ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 ἐν σοὶ εὐδόκησα.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 분위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너야말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안에서\ 아주-즐거워한다(누가3:22).

누가3:22에서 영이신 한 하느님이
하늘에선 '말씀으로' 공중에선 '비둘기로' 땅에선 '사람(예수)으로'
다변신하신 것을 보는가?
전통적 용어로 '삼위일체'를 보는가?

누가는 몇 절후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장면을 적으면서 나타나신 영은, 이 것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22절에선 정관사를 붙여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4) 토 프뉴마 토 하기로 '성령님'이라 적었습니다. 16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적을 때에도 정관사 없이 πνεύματι ἁγίῳ 프뉴마티 하기로 '성령'으로 표현했던 점과 비교하면 중대한 변화가 누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절의 정관사가 붙은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프뉴마 토 하기로에서 정관사는, 절과 절 사이가 좀 떨어지지만, 16절에 나온 πνεύματι ἁγίῳ 프뉴마티 하기로 '성령'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1. 오순절 다락방 행전2:1-4, 성령님의 발자취

38 Καὶ ἐν τῷ συμπληροῦσθ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ῆς πεντηκοστῆς ἦσαν πάντες ὁμοῦ ἐπὶ τὸ αὐτό.(1)

오순절 날이 오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한 곳에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39 καὶ ἐγένετο ἄφνω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ἦχος ὡσπερ φερομένης πνοῆς βιαίας καὶ ἐπλήρωσεν ὅλον τὸν οἶκον οὗ ἦσαν καθήμενοι(2)

그리고 갑자기, 마치 강한 바람이 들진하는 것처럼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앉아 있던 그 집 모든 곳을 채웠습니다.

40 καὶ ὠφθησαν αὐτοῖς διαμεριζόμεναι γλώσσαι ὡσεὶ πυρὸς καὶ ἐκάθισεν ἐφ' ἕνα ἕκαστον αὐτῶν,(3)

그리고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일이 개개인 위에 앉았습니다.

41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ἑ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καθὼς τὸ πνεῦμα ἐδίδου ἀποφθέγγεσθαι αὐτοῖς.(4)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령**이 그들에게 말로-털어-놓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전2:4에 나오는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트쓰 하기우를 ‘**성령님**’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그리스어 문법 때문이다.

① 새로운 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행전2장은 새 단원임,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트쓰 하기우는 처음 사용된 단어임으로 정관사를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프뉴마트쓰 하기우에 붙이지 않았다.

②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실사로 사용되면 고유명사를 만든다.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에서 형용사 **ἁγίου** 하기우는 실사 ‘성’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를 ‘**성령님**’ 고유명사로 번역한 것이다.

2. 코넬리오쓰 집,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발자취

기독교사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중 하나가 행전11:15입니다.

④ ἐν δὲ τῷ ἄρξασθαί με λαλεῖν ἐπέπεσ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π’ αὐτούς ὡς περ καὶ ἐφ’ ἡμᾶς ἐν ἀρχῇ.

내가 말하기를 막 시작하려는 참인데,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들 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위에 덮쳤습니다(행전11:15).

ἄρχειν 아르헤인은 무엇인가 막 시작하려는데 다른 일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동작을 표현한다(Th). 따라서 할 말도 못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 전치사 τὸ는 12절에 나오는 **성령님**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카이사리아 지역에 있는 코넬리오쓰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모인 성회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로잡아 사용하는 **성령**이 아닌, (보기: 페트로쓰와 이완넌이 싸마리탄 개종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음) 오순절 날(2:4)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같은 **성령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이다.

코넬리오쓰 집에서 모인 성회에 삼위일체의 **성령님**께서 직접 하강하신 사건은 획기적인 역사로, 코넬리오쓰의 성회를 다른 집회들로부터 현격하게 구별화 시켰다. **성령님**께서 카이사리아 지역을 방문하신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페트로쓰가, 환상에 순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이 지역에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신 점이다.

이는 제2 오순절에 해당하며 요엘(2장)의 예언이 2번째로 성취된 것이다. 이 획기적인 이방교회 시작은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며, 예루살렘 총회에서 페트로쓰가 일어나서 파울로쓰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성령님**을 받은(행전15:8)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연결함으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전도하는 파울로쓰의 선교를 허락했던 것이다(행전15:1-29). 이렇게 발언하게 된 페트로쓰의 동기는 두 말할 것 없이 코넬리오쓰 집에 하강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첫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게 된 자신의 체험 때문이다.

④③ καὶ ὁ καρδιογνώστης θεὸς ἐμαρτύρησεν αὐτοῖς δοὺ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καθὼς καὶ ἡμῖν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증인이 되셨습니다(행전15:8).

3.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님

④④ Ἐτι λαλοῦντος τοῦ Πέτρου τὰ ῥήματα ταῦτα ἐπέπεσ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πὶ πάντας τοὺς ἀκούοντας τὸν λόγον.

아직도 페트로쓰가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들 위에 찾아오셨습니다(행전10:44).

이것이 이방인 첫 번째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 온 기록이다. 성령님을 체험하려면 꼭 예배시간에 있어야 한다.

4. 예언을 주시는 성령님

크리스찬들의 예언도 성령님 자신의 선물이었다.

④⑤ ἀναστὰς δὲ εἷς ἐξ αὐτῶν ὀνόματι Ἄγαθος ἐσήμανεν δι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λιμὸν μεγάλην μέλλειν ἔσεσθαι ἐφ’ ὅλην τὴν οἰκουμένην, ἣτις ἐγένετο ἐπὶ Κλαυδίου.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름이 아가보쓰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독한 기근이 온 세상 위에 곧 있게 될 것이라고 령으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디우 (로마황제,AD41-54) 때에 발생했습니다(행전11:28).

④⑥ καὶ ἐλθὼν πρὸς ἡμᾶς καὶ ἄρας τὴν ζώνην τοῦ Παύλου, δῆσας ἑαυτοῦ τοὺς πόδας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εἶπεν, Τάδε λέγει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Τὸν ἄνδρα οὗ ἐστὶν ἡ ζώνη αὕτη, οὕτως δῆσουσιν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παραδώσουσιν εἰς χεῖρας ἐθνῶν.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면서, 파울로쓰의 띠를 취해서, 자신의 발들과 손들을 결박하고서, 그(아가보쓰)가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를 소유한 사람을, 이처럼, 이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손들에 다 넘길 것입니다(행전21:11).

행전11:28, 21:11은 아가보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한 구절들입니다.

④⑦ λειτουργούντων δὲ αὐτῶν τῷ κυρίῳ καὶ νηστεούντων εἶπ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Ἀφορίσατε δὴ μοι τὸν Βαρναβᾶν καὶ Σαῦλον εἰς τὸ ἔργον ὃ προσκέκλημαι αὐτούς.

그들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바르나바쓰와 싸울로쓰를 준비시켜라!(행전13:2)

안디옥 지역의 예언자들도(13:1)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예기를 들었다. 2절에 나오는 정관사 τὸ는, 이제 13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용어anaphora가 될 수 없다.

5.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성령님에 대항해서 항거하는 죄

성영을 거스리는 죄와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식별하는가?

④8 καὶ ὃς ἐὰν εἴπη λόγον κατὰ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ἀφεθήσεται αὐτῷ· ὃς δ' ἂν εἴπη κα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οὐκ ἀφεθήσεται αὐτῷ οὔτε ἐν τούτῳ τῷ αἰῶνι οὔτε ἐν τῷ μέλλοντι.

만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에 대항해서 단어 하나라도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용서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ὃς)든지(ἂν) 성령님에 대항해서 말한다면, 그는 이 세대에서 나 닦아-오는 세대에서도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태12:32).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카타 투 프뉴마트쓰 투 하기우)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마태12:32, 누가12:10) 가르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요, 또한 성령님은 하느님과 대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성령님을 반격하는 자는 마치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떠나는 환자와 같아서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렇지만 같은 구절에서 ὃς ἐὰν εἴπη λόγον κατὰ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ἀφεθήσεται αὐτῷ· 만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에 대항해서 단어 하나라도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용서되어질 것이다(마태12:32)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구별해 주는 이유는, 이에쭈쓰께서는 세상죄를 담당하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④9 Σκληροτράχηλοι καὶ ἀπερίτμητοι καρδίαις καὶ τοῖς ὠσίν, ὑμεῖς ἀεὶ τῷ πνεύματι τῷ ἁγίῳ ἀντιπίπτετε ὡς οἱ πατέρες ὑμῶν καὶ ὑμεῖς.

자신의-품행을-바꾸기를-거부하는-자들, 그리고 마음들과 귀들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들과 너희들처럼, 언제나 성령님에게 저항한다(행전7:51).

성령님께서서는 오래오래 전부터 이쓰라엘과 함께 해 오셨지만, 이쓰라엘의 선조들과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까지도 역시 성령님을 저항했다고 증언하는 구절이다. 성령님을 저항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악한 습성을 바꾸지 않고, 심령으로부터 들려오고, 밖에서 권위하는 감화의 기회들을 언제나 거부하는 고집이 있다.

⑤0 πᾶσα γραφὴ θεόπνευστος καὶ ὠφέλιμος πρὸς διδασκαλίαν, πρὸς ἐλεγμὸν, πρὸς ἐπανόρθωσιν, πρὸς παιδείαν τὴν ἐν δικαιοσύνῃ,

모든 성구는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고, 가르치기에, 책망하기에, 잘못을 고치기에, 의 안에서 훈련하기에 유익하고(ὦ)(디후3:16),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이미 60년 전에 출판이 된 Grammatical Insights to NT를 읽고 추렴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저자 Nigel Turner(20)는 모든 성구는 심지어 삼위일체 중 하나인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대변자로 사용한 예문들이나, 성영으로 감화를 받은 모든 예문들이 다 θεόπνευστος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고에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결론

1. 성영이 임한 예문들 정리

- ① 임신한 약혼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이오셉프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영께서(마태1:20)
- ② 마리아를 임신시킬 때에,
성영께서(누가1:35)
- ③ 의롭고 독실한 쑤메인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약속한 분은,
성영이(누가2:26).
- ④ 쑤메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에 받아 안도록 지시한 것은,
성영이(누가2:27-28).
- ⑤ 이에쑤쓰가 담그는 곳은,
성영과 불 속에다 (누가3:16).
- ⑥ 이에쑤쓰에게 충만해진 것은,
성영으로(누가4:1)
- ⑦ 이에쑤쓰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성영이(누가4:1)
- ⑧ 하느님께서 이에쑤쓰를 기름 부으신 것은,
성영으로(누가4:1)
- ⑨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영을(행전10:38)
- ⑩ 이에쑤쓰께서 선을 행하시며, 악령아래서 착취당하는(κ) 자들을 고치신 방법은
성영으로(행전10:38).
- ⑪ 제사장 자하리아스에게 나타나 아내가 임신한다고 말할 것은,
성영이(누가1:67)
- ⑫ 엘리자베트(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방문을 받을 때 일어난 것은,
성영으로 채워짐(누가1:41)
- ⑬ ‘나의 빵을 먹는 그 자가 내 원수가 되었구나고 다윗이 예언한 자는
성영으로 가룟 유다(행전4:25)
- ⑭ 스테파노쓰가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에쑤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성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행전7:55).
- ⑮ 바르나바쓰가 큰 군중을 주님에게 더한 방법은,
성영과 믿음으로(행전11:24)
- ⑯ 싸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도들이 기도받고 받은 것은
성영을(행전 8:17).
- ⑰ 씨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준 이유는
사도들이 손들을 얹을 때에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행전8:18).

- ⑱ 혀들로 말했으며 앞으로-있을-일들을-말할 수 있게한 것은,
성령이(행전19:6).
- ⑲ 파울로쓰인 싸울로쓰가 채워진 것은
성령으로(행전13:9),

2. 성령님이 임하는 예문들 정리

- ① 비둘기로서 변신한 것은,
‘성령님’께서(누가3:22)
- ② 아나니아쓰와 삽비라 죽은 이유는,
‘성령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행전5:3)
- ③ ‘하느님’과 같은 인격자는,
‘성령님’(행전5:4)
- ④ 교회가 전파하는 구속사업의 보이지 않는 증인은,
성령님 (행전5:32).
- ⑤ 페트로쓰에 환상으로 불결한 것들을 먹으라고 명하신 분은,
‘성령님’(행전10:19)
- ⑥ 페트로쓰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지시는,
‘성령님’(행전11:12)
- ⑦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채워진 것은,
성령님으로(행전2:4)
- ⑧ 코넬리오쓰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모인 성회에 방문하신 분은,
‘성령님’(행전11:15).
- ⑨ 아가보쓰란 자가 지극히 심한 기근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으로(행전11:28)
- ⑩ 아가보쓰가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예언한 구절은
행전11:28, 21:11
- ⑪ 성령님을 위해서 바르나바쓰와 싸울로쓰를 준비시켜라!고 성도들에게 말한 자는,
성령님(행전13:2)
- ⑫ 안디옥 지역의 예언자들이 미래사에 대해서 듣게 되는 출처는,
성령님으로부터(13:1)
- ⑬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님에 대항해서 반격하면(마태12:32).
- ⑭ 성령님을 저항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악한 습성을 바꾸지 않고,
감화의 기회들을 언제나 거부하는 고집(마태12:32)

3. 예문들에 나타난 성영과 성령님 역할 대비

성영

씨몬 위에 있음(누가2:25)
 예수님(누가4:1), 스테파노스(행전7:55),
 바르나바스(행전11:24)를 진행성인
 동작으로 충만케(형용사)
 하느님께서 주심(누가11:13)
 임신케하는 능력(마태1:20)
 가장-높으신-자의(ὁ) 능력(누가1:35)
 신적으로-대화하는 대화자(누가2:26)
 함께하며 지시를 내리는 자(누가2:27)
 물질을 태우지 않는 불의 병행어로(누가3:16)
 담금질의 재료(누가3:16)
 장소를 채움(행전2:2)
 장소로 인도하는 자(누가4:1)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누가11:13)
 하느님께서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재료(행전10:38)
 예언을 주심(행전4:25)
 기도로서 받을 수 있는 것(요한20:22)(행전8:15)
 수차 안수 받을 때 받게 됨(행전8:17)
 믿을 때에 받게 됨(행전19:2)
 헛소리로 말하고 미래를 예언함(행전19:6)
 싸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도들(행전 8:17)

성령님

이방인들 위어로 내려오심(행전10:44),
 페트로스(행전4:8), 싸올로스(행전13:9),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을
 순발적으로 채움(행전2:4)
 하느님께서 주심(행전15:8)
 다른 몸체로 변신할 수(누가3:22)
 하느님과 병행어구(행전5:3-4)
 함께하며 지시하심(행전10:19)
 사람 속으로 들어감(행전2:4)bdf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심(행전10:44)
 예언을 주심(행전1:16)(행전11:28)
 말로 대항하면 사죄불가(마태12:32)
 속이면 죽게 됨(행전5:5)
 외국어들을 말하게 됨(행전2:4)
 예배 참석자 전체를 동시에 입교시킴(행전10:44-48)
 경배의 대상(행전5:4)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영’은 예수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임신시키고 나서,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이오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에쭈쓰를 기름 분고, 이에쭈쓰는 선행을 행하시면서, 악마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성영과 불에 담그고, 스테파노스가 하늘에 계시는 이에쭈쓰를 보게되고, 바르나바스가 큰 군중을 주님에게 더하게 되고, 싸마리아의 성도들이 받게 된것도, 바울이 채워진 것도 모두 성영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으로, 도구로, 감화력으로 주로 소수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영’인 것이다.

반면에, ‘성령님은 하느님과 대등한 인격자로서, 개인들에게 방문하시지만, 이 경우들도 대부분은,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조직하시고, 건립하시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보기를 들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서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 참석자 전체를, 무리로, 통체로 감화하시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경우와, 통상 제2 오순절 다락방으로 불리우는, 카이사라 지역에 거주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코넬리우스의 가정과 동료들을, 할례를 집행하지 않고서,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참석자 전체를, 무리로, 통체로 구원하시고, 직접 교회로 입교시키

면서 이방인 첫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다. 바로 이 점에서 ‘성령님’은 ‘성영’의 역사로부터 구별화 되고 그 유일성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또한 **성령님**은 하^느님과 대등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올리는 예배의 대상이요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신이다. 반면에 **성영**은 크리스찬들을 격려 위로 강건하게 하면서 감화력으로 또는 치료자로서 지상교회에 머무는 동안 교인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끝까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신영한 노래와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 가도록, 내 속에서 내 밖에서 내 위에서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시면서, 나의 영혼을 내 본향이신, 영이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도록 나를 충만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성영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택인 것이다.

4. 예루살렘 총회(행전15:14-30)에 영향을 미친 베드로의 발언

초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 없이 전하는 복음은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총회가 열리게 된다. 이 때에 바울 측에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제자들 중에서도 신앙의 거인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미 베드로는 코넬리우스 가정에 성령님께서 방문하셔서 할례 없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허락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에서 제거시켜 버리게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7).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도록 보내셨지 않습니까?(7)

⑤① και ὁ καρδιογνώστης θεὸς ἐμαρτύρησεν αὐτοῖς δοὺ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καθὼς καὶ ἡμῖν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자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행사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심으로 증인이 되셨습니다(행전15:8).

하^느님께서서는 이방인들과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9). 그럼으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던 명에(할례)를 제자들의 목에 올려놓으므로 하^느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10) 대조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 얻습니다(11).

베드로가 발언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택했다는 씨몬 베드로의 증언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합니다(14-16).

⑤② בְּיָוֵם הַהוּא אָקִים אֶת־סֵכֶת דָּוִד הַנְּפֹלֶת וְגִדְרָתִי אֶת־פְּרָצִיּוֹן וְהִרְסָתוֹ אֶקִים וּבְנִיתֶיהָ כִּימֵי עוֹלָם:

그 날에는 내가 쓸어 진 다비드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어진 곳들을 내가 쌓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폐허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옛날처럼 내가 그것을 다시 지을 것이다(아모9:11)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을 찾을 수 있도록(17)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19).

예루살렘 총회장 역할을 담당했던 야고보는,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 보고들을 받을 때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실감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씁시다. 할례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우리 회원이 찾아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흥분했다고 들었습니다(24). 그러나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μηδὲν πλέον ἐπιτίθεσθαι ὑμῖν βάρος 보다 더 큰 짐을 당신들에게 얹어놓지 않는 것이

ἔδοξεν τῷ πνεύματι τῷ ἁγίῳ καὶ ἡμῖν **성령님**께와 우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행전15:28),

⑤③ ἀπέχεσθαι εἰδωλοθύτων καὶ αἵματος καὶ πνικτῶν καὶ πορνείας, ἐξ ὧν

διατηροῦντες ἑαυτοὺς εὖ πράξετε. ἔρρωσθε.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피, 목조여 죽인 고기, 부정한-육체관계로부터 절제하는 것,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면, 잘 실천하시는 줄로 압니다, 평강을 빕니다(29) 라고 말을 끝맺습니다.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하면서 더불어서 이방교회의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 크리쓰찬들이 쉽게 예수를 믿기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로가 열린 것은, 카아사라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인 코넬리우쓰 가정 성회에 참석한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에, 이들을 할례 없이 교회로 바로 입교 시켜버린 구원의 방법을, 예루살렘 총회가 참된 구원의 방법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는 이방인 교회의 기초와, 성령님께 즐거워 보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즐거워 보이는 교회 운영의 짜임새를, 보이지 않게 등 뒤에서 마련하신 **성령님**께 지극한 감사를 올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성영’으로부터 바르게 식별하고, 거룩하게 차별화하고, 구별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행전15:1-29).

